

## 초립동 춤의 해학적 춤사위 연구\*

이선화\*\* · 이주희\*\*\*

I. 서론	IV. 결론
II. 초립동 춤의 이론적 배경	참고문헌
III. 초립동 춤의 구조 및 해학적 춤사위 비교분석	Abstract

### I. 서론

어울릴 해, 희롱할 학의 해학(諧謔)은 풍자와 함께 사회적 현실이나 부조리한 삶의 문제를 곧이곧대로 드러내지 않고 웃기는 말과 행동으로 우회하거나 과장되게 표현하여 웃음을 유발하는 것으로 익살스럽고 품위 있는 농담을 말한다.<sup>1)</sup> 그 대표적인 것으로 한국의 탈춤을 들 수 있다. 현실 속에서 이를 수 없는 욕망을 구현하고 재치 있는 몸짓과 익살스런 노래가사, 가면 등으로 그 시대의 문제점을 해학적으로 표현하였다. 탈춤에서 등장하는 인물과 탈, 그리고 대사와 몸짓 모든 것이 풍자이고 해학임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속에서 해학적 요소를 알 수 있다. 우리 겨레는 예부터 한이 많은 민족으로 내재된 한을 해학으로 승화시킨 것이 탈춤이라 할 수 있다.<sup>2)</sup> 이와 같은 해학적인 민속춤의 성격은 마당에서 프로시니엄 무대로 공간이 이동되면서 해학적인 창작 춤도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그 대표적인 작품으로 최승희의 「초립동」을 들 수 있다. 초립동 춤은 어린 신랑이 어른의 흉내를 내는 모습을 다양한 표현과 해학적인 춤사위를 통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풍습이 익살스럽게 표현한 무용작품이다. 현재 추어지는 초립동 춤으로는 최승희의 초립동 춤과 이를 바탕으로 김백봉, 양성옥, 조흥동 등에 의해 재구성된 초립동 춤이 있다. 초립동 춤은 70 ~ 80년대에 접어들면서 성인이 아닌 아동들이 추는 춤으로 인식이 바뀌면서 전문 무용수들의 레퍼토리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해학적이고 이야기가 있는 창작 춤의 성격은 점점 무대에서 배제되기 시작하였고 추상적으로 승화시키는 춤사위가 그 주를 이루었다.

\* 2016년도 석사학위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무용교육전공

\*\*\*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공연영상창작학부 무용-전공교수, kintaro64@hanmail.net

1) 민중서림(1988), 『옛센스 국어사전』(서울: 민중서림), p.2087.

2) 황송문(1988), 한국인의 표정: 탈춤의 해학, 『북한』 1월호, p.140.

본 논문은 연구자의 석사논문을 바탕으로 연구되었으며 초립동 춤에 나타난 해학적인 동작을 비교연구하고 초립동 춤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내용과 그 안에 내재되어진 해학성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선행연구에는 「초립동 춤에 대한 전승과 의미」 고경희(2014)가 있으나 초립동 춤의 자료를 통해 어떻게 전승되었는지 연구된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동심을 소재로 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 의미를 찾는 연구에 가까웠다. 초립동 춤이 갖고 있는 동작과 작품의 흐름을 통해 초립동 춤을 연구한 선행연구는 미흡하므로 초립동 춤이 가지는 해학적 춤사위 비교연구라고 할 수 있는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지닐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밝힌다. 최승희의 수제자인 김해춘(평양 만수대 예술단 안무가)에 의해 백향주에게 전수된 초립동 춤은 최승희가 했던 양식 그대로를 북한에서 디자인하고 녹음한 것이라 최승희의 춤을 그대로 표현한 것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다.<sup>3)</sup> 최승희의 초립동 춤을 기반으로 추어지고 있는 춤 중에서 최승희(춤 백향주)〈백향주 양코르 공연〉, 김백봉(춤 안귀호)〈한국명작 무대제전(3)〉, 양성옥 〈최승희: 어제와 오늘〉, 조흥동 〈조흥동의 춤의 세계〉의 초립동 춤 영상을 통해 분석하고자 하며, 현존하는 무용 영상자료의 미비로 인해 현재적 시점에서 재연된 것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 II. 초립동 춤의 이론적 배경

초립동 춤은 많은 무용수들에 의해서 추어졌으며, 현재에는 최승희의 초립동 춤, 김백봉의 초립동 춤, 양성옥의 초립동 춤, 조흥동의 초립동 춤 등이 있다.

초립동 춤은 1937년 최승희에 의해 처음 창작된 이야기가 있고 극적인 요소가 들어간 해학적인 창작 작품이다. 우리나라의 옛날 결혼풍습을 배경으로 하여 결혼을 앞둔 어린 소년이 결혼이라는 뜻도 모른 채 주변의 축하 분위기 속에서 신나게 뛰어노는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풍자적이고 해학적인 작품이 나온 이 시기의 근대무용은 개인의식에 눈을 뜬 시민사회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근대적이란 단어는 예전과는 달리 새로움이라는 개념으로 다가왔던 때라고 할 수 있다.<sup>4)</sup>

1934년부터 최승희의 무용은 민족적인 정취가 심화된 작품을 하게 되었고, 한국 전통의 무용에 관심을 갖는 것을 알 수 있으며, 1934년 5월 20일 제 1회 최승희의 신작무용발표회에서는 조선 고전 관현악 편곡에 맞춰 우리 고유의 맛을 쓰고 장의를 입고 유장하게 추는 경쾌한 춤 「에헤라 노아라」를 발표하였고, 1936년 9월 22일부터 사흘간 일본의 히비야 공화당에서 진행한 제3회 신작 무용 발표회에서는 우리나라 결혼풍속을 배경으로 하여 어린신랑의 장가가는 내용을 해학적으로 표현한 「초립동」을 공연하게 되었다.<sup>5)</sup> 최승희의 초립동 춤은 한국의 정서를 어린신랑의 이미지로 표현하여 한국적인 분위기를 극대화시킨, 소품위주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sup>6)</sup>

초립동의 원곡은 식민지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처음 6소절의 주제를 반복하면서 내용을 부각시켰고

3) 연합뉴스(1998, 6 30), 『최승희춤 선보인 북한국적 무용수 백향주』 (서울: 연합뉴스)

4) 정승희(1995), 근대무용의 기점과 최승희의 작품세계, 『대한무용학회논문집』, p.78.

5) 조윤정(2008), 최승희의 예술세계 및 작품경향과 무용관,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28.

6) 한국콘텐츠진흥원(2005), 『최승희 춤, 문화콘텐츠닷컴』 (서울: 한국콘텐츠진흥원), p.12.

8소절의 전주에 이어서 나오는 기본선율은 동심의 세계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음조이며 단락도 6소절로 간결하다. 반복되는 기본선율과 다양한 연결구와 간주를 도입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sup>7)</sup> 극적인 요소가 뛰어난 최승희의 춤 기술이 돋보인 초립동 춤은 예로부터 사람들 속에 알려진 풍습을 동심의 세계와 춤, 그리고 음악에 그대로 형상화되어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고 보는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던 작품이다.<sup>8)</sup>

### III. 초립동 춤의 구조 및 해학적 춤사위 비교분석

최승희의 초립동 춤은 현재 많이 추어지고 있지 않으며, 무용수에 의해 변형 또는 원형의 형태로 전승되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 최승희, 김백봉, 양성옥, 조흥동의 초립동 춤을 예로 들 수 있다. 각각의 초립동 춤은 해학적인 동작과 놀이동작, 음악과 의상 등의 변화가 있었고, 동일한 동작과 반복적인 동작에서도 각각의 특징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최승희는 창작음악을 사용하였으나 김백봉, 양성옥, 조흥동은 민요를 사용하면서 음악이 변형된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최승희의 초립동 춤을 재현한 백향주는 연결구와 간주부분을 도입한 것 외에 원곡 그대로를 사용하였고, 김백봉, 양성옥, 조흥동의 초립동 춤에서는 밀양아리랑으로 변형하였다. 밀양아리랑의 장단인 새 마치 장단으로 골격을 이루고 있으며, 조흥동의 초립동 춤에서는 도입부분에 창작음악을 덧붙여서 음악을 사용하였다. 또한 의상에서 초립을 쓰고 도포를 입는 것과 도포를 들켰을 때 보여 질 수 있도록 안감을 화려하게 하는 것은 변화되지 않았으며, 조흥동의 초립동 춤에서는 움직임 때 초립이 회전하도록 초립의 쓰임새를 다르게 변화 주었다.

초립동 춤의 해학적인 춤사위 특징은 과장된 표현이며, 그 표현 속에는 전통적인 결혼문화, 놀이문화, 관습을 엿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최승희(춤 백향주), 김백봉(춤 안귀호), 양성옥, 조흥동의 초립동 춤의 구조를 알아보고, 각각의 초립동 춤의 해학적인 춤사위를 분석하여 최승희 초립동 춤을 중심으로 변화되거나 공통된 해학적 춤사위의 특성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 1. 최승희 초립동 춤의 구조

최승희의 초립동 춤은 1937년에 초연되었다. 최승희의 양자로 알려진 김해춘으로부터 최승희의 춤을 전수 받은 백향주의 공연자료(1999)를 통하여 최승희 초립동 춤을 분석하고자 한다. 최승희 초립동 춤의 전체적인 구조는 11가지의 장면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그 중 해학적인 춤사위는 「어른흉내를 내며 걷는 춤사위」, 「도포를 사용한 춤사위」, 「넘어지는 춤사위」, 「생각하는 춤사위」, 「복주머니를 돌리는 춤사위」로 5가지이다. 춤의 구조는 <표 1>와 같다.

7) 리철우, 김연갑(2011), 『전설의 무희 최승희의 예술세계』 (서울: 신나라)(DVD).

8) 앞의 자료.

〈표 1〉 최승희 초립동 춤의 구조

	서사구조	춤사위 구조
1	등장장면	① 어른흉내를 내며 등장한다.(반복) ② 비껴든 사위로 뛰어 나온다. ③ 뒤통치를 강하게 짚으며 걷는다. ④ 도포를 잡아 날개 퍼듯 팔을 뻐다.
2	도포를 잡고 팔을 피며 뛰는 장면	① 도포 끝을 잡고 앉았다 일어난다. ② 발을 넓게 벌려서 뛰어 앉았다가 발을 모으며 다시 뛴다. ③ 팔은 날개를 퍼듯 평사위로 들어올린다.
3	도포를 머리에 쓰는 장면	① 도포를 뒤집어서 머리에 쓴다. ② 도포 끝을 잡고 평사위에서 걷는다.
4	누워서 손짓하는 장면	① 평사위로 빠르게 돈다. ② 미끄러지듯 옆으로 눕는다. ③ 박자를 타며 손짓한다.
5	기웃거리는 장면	① 도포 끝을 한쪽만 잡고 일어난다. ② 새색시가 오는 소리에 좌우로 중심을 이동하며 기웃 거린다.
6	다리를 높이 차는 장면	① 옆으로 걸어가면서 오른 발을 높이 차올린다. ② 왼 발은 뒤통치를 들어 올리고 오른발은 90°이상 높이 차올린다.
7	복주머니를 돌리는 장면	① 복주머니를 잡고 돌리며 뛴다. ② 오른손으로 도포 끝을 잡고 왼손으로 복주머니를 세게 돌린다.
8	허우적거리다가 넘어지는 장면	① 넘어질 듯 허우적거린다. ② 다리를 V자로 들고 눕는다. ③ 다리 사이로 놀란 얼굴을 보인다. ④ 다리를 내린다.
9	새색시를 생각하는 장면	① 의자에 앉은 듯 다리를 꼬고 앉는다. ② 검지를 볼에 갖다 댄다. ③ 고개를 가우똥 거린다.
10	도포를 피면서 뛰는 장면	① 오른 쪽 도포 끝을 잡고 팔을 피면서 뛴다. ② 팔을 내렸다 올리면서 도포를 바깥쪽으로 열고 닫으며 뛴다.
11	퇴장장면	① 오른손으로 도포 끝을 잡는다. ② 오른발을 들어 굴신한다. ③ 양쪽 검지를 세워 허리에 놓는다. ④ 어른 흉내를 내며 걷는다.

## 2. 김백봉 초립동 춤의 구조

김백봉의 초립동 춤은 1999년 초연되어졌다. 초연되어진 이후, 계속해서 공연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1년 7월 15일 한국명작 무대제전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김백봉의 초립동 춤은 최승희 초립동 춤을 기반으로 재구성되었으나, 실제 맥락을 살펴보면 전체적인 구성은 같지 않다. 전체적인 춤의 구성은 12장면으로 나뉘며, 그 중 해학적 춤사위는 「어른흉내를 내며 걷는 춤사위」「도포를 사용한 춤사위」「넘어지는 춤사위」「제기를 차는 춤사위」로 구성된다. 춤의 구조는 〈표 2〉과 같다.

〈표 2〉 김백봉 초립동 춤의 구조

	서사구조	춤사위 구조
1	등장장면	① 어른흉내를 내며 등장한다.(반복) ② 첫 등장은 팔짱을 끼고 걷는다. ③ 두 번째 등장은 뒷짐을 지고 걷는다. ④ 평사위에서 머리사위하며 뛰어나온다.
2	주먹을 쥐고 걷는 장면	① 주먹을 쥐고 배를 내밀며 갈지자로 걷는다. ② 어깨를 좌우로 흔든다.
3	엉덩이를 흔드는 장면	① 손으로 도포를 움켜잡아 허리 뒤로 갖다 댈다. ② 엉덩이를 흔들고, 걸으면서 한 바퀴 돈다. ③ 고개를 좌우로 흔든다.
4	허우적거리다가 넘어지는 장면	① 머리사위 하며 뛰다가 중심을 못 잡고 허우적거린다. ② 뒤로 넘어지고 다리를 든다. ③ 박자에 맞추어 다리를 내린다. ④ 민망한 듯 고개를 들어 웃는다. (반복)
5	다리에 힘이 풀리는 장면	① 넘어진 상태에서 일어나 앉는다. ② 일어나려고 하는데 다리가 후들거린다. ③ 다리를 떨다가 털썩 주저앉는다.
6	걸어가다가 멈추고 힐끗 보는 동작	① 배를 내밀고 걷는다. ② 마지막 박자에 뒤를 돌아보며 장난스러운 모습을 보인다.
7	도포를 뒤집어 쓰는 장면	① 도포를 뒤집어서 어깨에 메고 걸으며 엉덩이와 고개를 흔든다. ② 도포 끝을 잡고 비껴든 사위로 뛴다. ③ 도포를 뒤집어서 머리에 쓰고 숨바꼭질을 하듯 요리조리 살피다가 뛴다.
8	도포를 잡고 뛰는 장면	① 도포 끝을 잡고 날개를 피듯 팔을 든다. ② 두 번에 걸쳐서 뛰며, 다리를 벌려 낮게 뛰고, 다시 발을 모아서 뛴다.
9	제기를 차는 장면	① 손에 제기를 잡고 던질 준비를 한다. ② 제기를 높이 던지며 시선을 쳐다본다. ③ 다리를 번갈아가며 차올리다가 앞으로 넘어질 뻔 한다.
10	속상해하는 장면	① 제기를 멀리 차버려서 뽀로통한 표정을 짓는다. ② 검지로 관객을 가리키며 불만이 가득한 표정을 짓는다. ③ 뒤로 걸어 들어와 검지를 볼에 갖다 댈다. ④ 팔을 머리위로 들었다가 내리면서 뒷짐을 지고 고개를 가우똥거린다. 앞, 뒤 반복한다.
11	엉덩이를 뒤로 빼는 장면	① 도포 끝을 잡고 비껴든 사위로 뛴다. ② 도포 잡은 손을 앞으로 밀고 엉덩이를 뒤로 빼다.
12	퇴장장면	① 도포를 뒤집어서 어깨에 댈다. ② 뒤꿈치를 대고 걸으며 고개를 좌우로 흔들고, 시선은 안쪽을 봤다가 위 시선을 바라본다. (반복)

### 3. 양성옥 초립동 춤의 구조

양성옥의 초립동 춤은 초연된 시기에 대해서는 자료가 미비하나 1997년 1월 22일 「최승희: 어제와 오늘」 공연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양성옥의 초립동 춤은 11가지의 장면으로 나눌 수 있으며, 해학적인 춤사위는 「어른흉내 내며 걷는 춤

사위) 「도포를 사용한 춤사위」 「넘어지는 춤사위」 「주먹을 쥐고 뛰는 춤사위」 「제기를 차는 춤사위」 로 5가지로 나타난다.

춤의 구조는 <표 3>과 같다.

<표 3> 양성옥 초립동 춤의 구조

	서사구조	춤사위 구조
1	등장장면	① 어른흉내를 내며 등장한다.(반복) ② 어깨는 뒤로 젖혀서 좌우로 흔들고, 고개는 끄덕이며 걷는다. ③ 머리사위를 하며 뛴다.
2	엉덩이를 뒤로 빼는 장면	① 평사위로 걷는다. ②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오른발을 앞으로 내밀고, 왼발은 굴신한다. ③ 양팔은 뒤로 내밀고, 입술을 내밀어 장난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3	평사위로 뛰는 장면	① 평사위에서 손바닥을 뒤집으며 제자리에서 뛴다. ② 마지막 박자에 다리를 90° 이상 높이 든다.
4	넘어지는 장면	① 머리사위에서 다리를 높이 들고 제자리에서 뛴다. ② 중심을 못 잡고 허우적거리다가 뒤로 넘어진다. ③ 팔은 수평이고, 다리를 들었다가 박자에 맞추어 내린다. ④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었다가 내린다. (반복)
5	주저앉은 장면	① 앉은 상태에서 다리와 팔을 들었다가 내려놓으며, 바닥을 짚고 힘을 준다. ② 세 번 반복하고 팔을 무릎 위에 툇 떨어뜨린다. ③ 고개를 가우똥거리며 뻔뻔한 표정을 짓는다.
6	도포를 잡고 뛰는 장면	① 도포 끝을 잡고 두 번에 나눠서 뛰어 올라온다. ② 팔은 날개를 피듯 위로 올리고, 다리는 두 발을 벌려 낮게 한번, 두발을 모아서 위로 한번 뛴다.
7	도포를 어깨와 머리에 쓰는 장면	① 도포를 어깨에 메고 걷는다. ② 뒤통지를 강하게 짚으며 고개를 좌우로 흔들다. ③ 도포를 머리에 쓰고 뒤통지를 짚으며 걷는다.
8	주먹을 쥐고 뛰는 장면	① 주먹을 쥐고 팔꿈치를 90°로 들어 올려 어깨를 크게 만든다. ② 몸을 낮추고 양옆으로 두 번 씩 뛴다.
9	제기를 차는 장면	① 양손을 크게 벌려 박수를 친다. ② 제기를 차올리듯 다리를 차올리고, 시선도 같이 따라간다. ③ 두 번 크게 차올리고 한 바퀴 뛰어 돌고, 반대쪽으로 빠르게 여섯 번 친다.
10	새색시를 찾는 장면	① 양 팔을 들었다가 힘없이 내리며 고개를 가우똥 거리고 앞뒤를 반복한다. ② 천천히 앞으로 몸을 돌리며 검지로 관객을 가리킨다. ③ 오른 쪽, 왼쪽을 천천히 이동하며 가리킨다.
11	퇴장장면	① 뒷짐을 지면서 도포를 크게 두 번 친다. ② 도포를 어깨에 메고 뒤통지를 짚으며 걷는다. ③ 고개는 좌우로 흔들며 걷는다.

#### 4. 조흥동 초립동 춤의 구조

조흥동의 초립동 춤은 조흥동의 춤의 세계 (2002년 3월 15~16일) 공연 자료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조흥동의 초립동 춤은 이후 경기도립무용단(2012~2013)의 공연을 통해 추어졌으며, 어린 남자아이의 마음을 담은 내용으로 재구성되었다.

긴 머리를 땡기 틀어 초립을 쓰고 흔들거리는 초립을 통하여 어린 아이의 장난스러운 모습을 표현하였다. 특히 초립이 흔들거리는 장면과 숨바꼭질을 하는 장면은 조흥동 초립동 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춤의 구조는 11가지이며, 해학적 춤사위는 「어른 흉내를 내며 걷는 춤사위」, 「생각하는 춤사위」, 「도포를 사용한 춤사위」, 「숨바꼭질을 하는 춤사위」, 그리고 「초립을 흔드는 춤사위」로 총 5가지로 나타난다.

조흥동의 초립동 춤의 구조는 <표 4>와 같다.

<표 4> 조흥동의 초립동 춤의 순서

	서사구조	춤사위 구조
1	숨바꼭질 하는 장면	① 막 안에서 상체만 내밀어 쳐다보고 놀란 표정으로 숨는다.
2	등장장면	① 팔짱을 낀 상태에서 천천히 걸어 나온다. ② 왼쪽을 한 번 쳐다보고 다시 걷는다. ③ 점점 빨라지면서 뛰어 들어간다. ④ 발끝으로 걷는다.
3	엉덩이를 흔드는 장면	① 검지를 볼에 댄다. ② 무릎을 굴신하여 엉덩이를 크게 흔든다.
4	도포를 치는 장면	① 앉았다가 뛰면서 일어난다. ② 도포를 뒤로 크게 치고 팔을 앞으로 모아 오른손을 머리에 댄다.
5	도포를 들고 뛰는 장면	① 왼 발을 들고 제자리에서 댄다. ② 다리는 앞뒤로 이동하고, 팔은 머리사위로 댄다. ③ 제자리에서 뛰며 한 바퀴 돈다.
6	초립을 흔드는 장면	① 팔짱을 끼고 크게 두 번 걷는다. ② 뒤꿈치를 딛으면서 걷고, 고개를 끄덕이며 초립을 흔든다. ③ 왼쪽으로 돌면서 갖게 걷고, 초립을 흔든다.
7	갈까 말까 장난치는 장면	① 뒤돌아서서 오른쪽 도포 끝을 잡고 볼에 댄다. ② 다리를 겹쳐서 오른 발을 앞에 놓고 선다. ③ 왼 발은 발끝은 바닥에 대고 뒤꿈치만 들었다 놓으며 오른발로 이동한다. ④ 고개를 좌우로 시선을 바꿔준다.
8	새색시를 생각하는 장면	① 천천히 앉는다. ② 왼손은 무릎을 잡고, 오른손은 검지를 머리에 갖다 댄다. ③ 수줍은 얼굴로 새색시를 생각한다.
9	수줍어하는 장면	① 도포를 뒤로 크게 치며 걷는다. ② 양손을 모아 합장하여 볼에 갖다 댄다. ③ 천천히 걷는다. ④ 머리사위하며 오른 쪽 왼쪽 반복하며 걷는다. ⑤ 뒤돌아서 양손을 가슴 앞에 놓고 고개를 좌우로 흔든다.
10	머리사위하며 뛰는 장면	① 양손은 머리사위하고 앉았다가 댄다. ②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오른발을 들고 반대쪽은 왼발을 든다. ③ 팔을 펴면서 내리고 발은 제자리에서 구른다. ④ 고개와 엉덩이를 흔든다.
11	퇴장장면	① 두 바퀴를 돌면서 도포를 어깨에 댄다. ② 상체를 크게 들썩이면서 걷는다. ③ 초립을 흔들거린다.

## 5. 해학적 춤사위 비교 분석

초립동 춤에 나타난 해학적 춤사위는 초립동 춤이 갖고 있는 이야기와 배경, 극적인 요소를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해준다. 그 중에서도 두드러지는 해학적인 춤사위는 「어른흉내를 내며 걷는 춤사위」, 「도포를 사용한 춤사위」, 「넘어지는 춤사위」, 「제기를 차는 춤사위」, 「복주머니를 돌리는 춤사위」, 「생각하는 춤사위」, 「숨바꼭질을 하는 춤사위」, 「주먹을 쥐고 뛰는 춤사위」, 「초립을 돌리는 춤사위」이다.

공통적으로 나타난 해학적 춤사위로는 어른흉내를 내며 걷는 춤사위, 도포를 사용한 춤사위로 나타났다. 팔짱이나 뒷짐을 지고 발을 강하게 짚는 동작은 어른을 표현했으며, 고개를 좌우로 흔들거나 턱을 아래로 당기는 동작은 어린 아이인 것을 짐작하게 한다. 어른이 하지 않는 행동을 묘사하면서 도포를 크게 펴리거나 머리에 쓰고 얼굴을 가리는 등 과장된 표현으로 구성되었다.

〈표 5〉 어른 흉내를 내며 걷는 춤사위 비교

해학적 춤사위	최승희의 초립동	김백봉의 초립동	양성옥의 초립동	조흥동의 초립동
어른 흉내를 내며 걷는 춤사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른흉내를 내며 천천히 걷는 동작</li> <li>어른흉내를 내며 빠르게 걷는 동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른흉내를 내며 걷는 동작</li> <li>고개를 흔들며 걷는 동작</li> <li>주먹을 쥐고 걷는 동작</li> <li>걸음을 멈추고 힐끗 보는 동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른흉내를 내며 느리게 걷는 동작</li> <li>어른흉내를 내며 빠르게 걷는 동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까치걸음</li> <li>초립을 흔드는 동작</li> </ul>

초립동 춤의 대표적인 해학적 춤사위 중 「어른 흉내를 내며 걷는 춤사위」는 최승희, 김백봉, 양성옥, 조흥동의 초립동 춤에서 공통적으로 추어졌으며, 춤의 짜임새는 달랐다. 최승희의 초립동 춤에서는 뒷짐을 지고 걸어 나와서 무릎을 직각으로 들고, 발을 강하게 짚으며, 위엄 있는 어른의 모습을 해학적으로 표현하였다. 이 동작은 등장장면에서 두 번 반복되며 퇴장장면에서 동일하게 추어진다. 어린아이의 동심을 표현한 과장된 얼굴표정이 동작의 의도를 드러내주었다. 또한 음악이 빠르게 전개되면서 다리를 높이 들고 고개를 좌, 우로 흔들면서 걸어가는 동작이 특징이다.



〈그림 1〉 최승희의 초립동 - 어른 흉내를 내며 걷는 동작

김백봉의 어른흉내를 내며 걷는 춤사위는 처음에 등장할 때에는 가슴 앞에 팔짱을 껴으며, 두 번째 등장할 때에는 뒷짐을 지고 나오면서 팔의 위치를 변화 주었다.

발동작은 빠르게 걸을 때에는 뒤꿈치를 바닥에 짚으면서 걷고, 느리게 걸을 때에는 무릎을 굴신하여 반대쪽다리를 앞으로 밀면서 걷는다. 최승희의 초립동 춤에서 표현한 어른을 표현한 동작이 힘 있고 절제되어있다면 김백봉의 초립동 동작은 호흡이 연결되어 동작의 흐름을 부드럽게 표현하였다.



〈그림 2〉 김백봉의 초립동 - 어른 흉내를 내며 걷는 동작

양성옥의 어른흉내를 내며 걷는 춤사위는 최승희의 초립동 춤과 같이 뒷짐을 지고 걷는다. 하지만, 발 동작은 뒤꿈치를 바닥에 찍으면서 강하게 걷고, 찍었던 다리를 당겨오듯 걷는다. 다리를 당겨올 때 박자에 맞추어 고개도 끄덕거리고 턱을 아래로 당긴다.



〈그림 3〉 양성옥의 초립동 - 어른 흉내를 내며 걷는 동작

앞에서 분석한 최승희, 김백봉, 양성옥의 초립동 춤에서 뒤꿈치를 강하게 찍으면서 걸었다면 조흥동의 초립동 춤에서는 발끝으로 차분하게 걸어가면서 과장되지 않게 표현되었다. 또한, 굴신을 하거나 무릎을 올리면서 움직였던 다른 초립동 춤과는 달리, 조흥동의 초립동 춤에서는 굴신 없이 일정한 높이로 걸었다.

천천히 걸어가다가 속도가 빨라지면서 까치걸음으로 걸어가고, 몸을 강하게 들썩거리면서 초립이 회전한다.



〈그림 4〉 조흥동의 초립동 - 어른 흉내를 내며 걷는 동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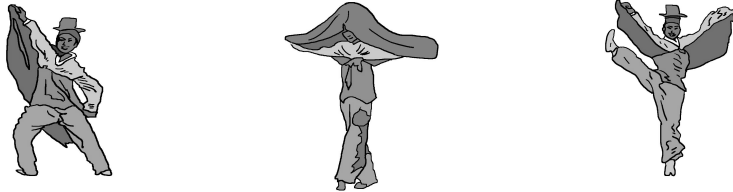
어른 흉내를 내며 걷는 동작은 각각의 초립동 춤에서 주요 해학적인 춤사위로 추어졌으며, 최승희, 김백봉, 양성옥의 초립동 춤에서 두 번 반복되었고, 조흥동의 초립동 춤에서는 반복되지 않았다.

두 번째로 해학적인 춤사위는 「도포를 사용한 춤사위」이다. 이 춤사위는 최승희, 김백봉, 양성옥, 조흥동의 초립동 춤에서 공통적으로 추어졌으며, 춤의 구성과 표현은 다른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6〉 도포를 사용한 춤사위 비교

해학적 춤사위	최승희의 초립동	김백봉의 초립동	양성옥의 초립동	조흥동의 초립동
도포를 사용한 춤사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웃거리는 동작</li> <li>• 도포를 쓰고 걷는 동작</li> <li>• 도포를 잡고 팔을 흔드는 동작</li> <li>• 앉았다가 두발을 모으며 뛰는 동작</li> <li>• 도포를 머리에 쓰고 뛰는 동작</li> <li>• 도포를 잡고 다리를 높이 차올리는 동작</li> <li>• 도포를 피면서 뛰는 동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포를 잡고 뛰는 동작</li> <li>• 도포를 머리에 쓰는 동작</li> <li>• 도포를 잡고 엉덩이를 뒤로 빼는 동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포를 머리에 쓰고 엉덩이를 빼며 걷는 동작</li> <li>• 도포 끝을 잡고 엉덩이를 빼며 걷는 동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장하며 걷는 동작</li> <li>• 새색시를 생각하는 동작</li> </ul>

최승희 초립동 춤에서 도포를 사용한 춤사위는 전체적인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도포자락을 이용하여 얼굴을 감추거나 새색시를 찾기 위해 기웃거리고, 아이의 해맑고 장난스러운 모습을 더욱 과장되게 표현하였다.



〈그림 5〉 최승희의 초립동 - 도포를 사용한 동작

김백봉의 초립동 춤에서 보여 지는 도포를 사용한 춤사위는 도포를 잡고 뛰는 동작, 도포를 뒤집어서 머리에 쓰는 동작, 도포를 잡고 엉덩이를 뒤로 빼는 동작이 있다. 도포를 머리에 쓰고 뛰는 동작은 최승희의 초립동과 같이 표현되었으나, 엉덩이를 뒤로 빼는 동작은 재구성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도포를 사용하는 동작은 장가가는 어린아이의 설레는 모습을 표현해주었다.



〈그림 6〉 김백봉의 초립동 - 도포를 사용한 동작

양성옥의 초립동 춤에서 도포를 사용한 춤사위로는 도포를 머리에 쓰고 엉덩이를 빼며 걷는 동작, 도포 끝을 잡고 엉덩이를 빼며 걷는 동작, 엉덩이를 빼며 걷는 동작이 있다. 도포를 펼치기 전에 몸을 움츠

리거나 굴신을 깊게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7〉 양성옥의 초립동 - 도포를 사용한 동작

조흥동 초립동 춤의 도포를 사용한 춤사위는 도포를 치며 뛰는 동작, 도포를 들면서 뛰는 동작, 도포를 잡고 뛰는 동작이 있다.

전체적인 구성으로 보았을 때, 도포를 사용한 춤사위는 최승희의 초립동 춤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김백봉과 양성옥의 초립동 춤에서는 엉덩이를 뒤로 내밀거나 흔드는 동작으로 재구성되었으며, 조흥동의 초립동 춤에서는 퇴장장면에서 도포를 어깨에 두르고 걷는 동작으로 재구성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8〉 조흥동의 초립동 - 도포를 사용한 동작

초립동 춤에서 또 다른 주요 해학적 춤사위는 「넘어지는 춤사위」로 최승희, 김백봉, 양성옥의 초립동 춤에서 추어졌다. 이 동작은 뛰는 사위나 도는 사위로 연결되는데 중심을 못 잡고 허우적거리다가 넘어지는 것을 표현하였다.

〈표 7〉 넘어지는 춤사위 비교

해학적 춤사위	최승희의 초립동	김백봉의 초립동	양성옥의 초립동	조흥동의 초립동
넘어지는 춤사위	넘어지는 동작	허우적거리며 넘어지는 동작	넘어지는 동작	

최승희 초립동 춤에서는 넘어진 후 다리를 들고, 다리사이로 놀란 표정을 지으며, 김백봉과 양성옥의 초립동 춤에서는 넘어진 후에 다리만 들고 내린다. 최승희 초립동 춤에서는 들고 있는 다리는 박자에 맞추어 내리고, 손으로 바닥을 짚고 완전히 눕지 않은 상태에서 무릎을 올리고 앉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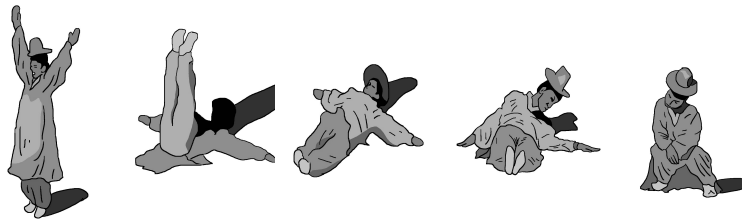
〈그림 9〉 최승희의 초립동 - 넘어지는 동작

하지만 김백봉과 양성옥의 초립동 춤에서는 등을 바닥에 대고 누워 들고 있는 다리를 박자에 맞추어 내린다. 두 작품 모두 고개를 들어서 부끄러운 모습을 표현하였고, 천천히 손으로 바닥을 짚고 앉는 모습을 보여준다. 일어나는 동작에서 최승희, 김백봉의 초립동 춤에서 고개를 가우뚱하는 모습으로 일어난다.



〈그림 10〉 김백봉의 초립동 - 허우적거리며 넘어지는 동작

반면, 양성옥의 초립동 춤에서는 어린아이가 넘어졌다가 일어나면서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는 모습으로 재구성 되었으며 작품에서 표현되어진 어린아이의 장난스러운 모습을 공통적으로 보여주었다. 조흥동의 초립동 춤에서 넘어지는 춤사위는 표현되지 않았다.



〈그림 11〉 양성옥의 초립동 - 넘어지는 동작

각각의 초립동 춤은 최승희의 초립동 춤으로 알려졌으나, 해학적 춤사위의 비교를 통해서 춤의 구성과 해학적 표현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었다.

「어른을 흉내 내며 걷는 춤사위」와 「도포를 사용한 춤사위」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춤사위였으며, 「넘어지는 춤사위」는 조흥동의 초립동에서 나타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8〉 특징적인 해학적 춤사위 비교

해학적 춤사위	최승희의 초립동	김백봉의 초립동	양성옥의 초립동	조흥동의 초립동
제기를 차는 사위		• 제기를 차는 동작	• 제기를 차는 동작	
복주머니를 돌리는 춤사위	• 복주머니를 돌리는 동작			
생각하는 춤사위	• 누워서 손짓하는 동작 • 새색시를 생각하는 동작			• 두 손을 모아 걷는 동작 • 새색시를 생각하는 동작
숨바꼭질을 하는 춤사위				• 숨바꼭질을 하는 동작
주먹을 쥐고 뛰는 춤사위			• 주먹을 쥐고 뛰는 동작	
초립을 흔드는 춤사위				• 초립을 흔드는 동작

놀이를 표현한 동작으로는 「제기차기를 하는 춤사위」가 있다. 이 동작은 제기를 차는 어린 신랑을 표현한 것으로 제기를 높이 차올리다가 멀리 날아가 버려서 뽀로퐁한 모습을 보여준다. 김백봉의 초립동 춤에서는 마치 제기를 손에 들고 있는 것처럼 던질 준비를 하고 높이 던지는 표현을 하는 반면, 양성옥의 초립동 춤에서는 박수를 치면서 동시에 제기를 차올린다.



〈그림 12〉 김백봉의 초립동 - 제기를 차는 동작

공통적인 부분은 오른쪽과 왼쪽을 반복하며, 발을 차는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 또한, 시선은 마치 제기가 높이 떠있는 듯이 위를 바라본다.



〈그림 13〉 양성옥의 초립동 - 제기를 차는 동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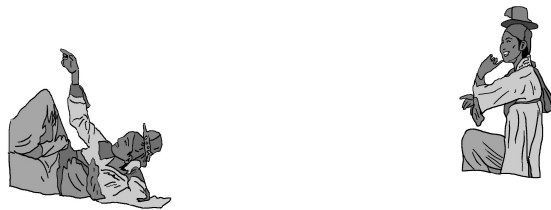
최승희의 초립동 춤의 특징적인 춤사위는 「복주머니를 돌리는 춤사위」이다. 이 동작은 어린신랑이 장가를 가니, 돈이 두둑하게 생겨서 기분 좋은 마음을 표현한 동작으로 복주머니를 돌리면서 가볍게 뛰는 동작이다. 처음에는 복주머니를 천천히 돌리면서 뛰다가 속도가 빨라지면서 복주머니를 빠르게 돌린다. 뛰는 방향은 뒤로 이동을 하고, 뒤킴치를 바닥에 찍으면서 뛰는 동작이다.



〈그림 14〉 최승희의 초립동 - 복주머니를 돌리는 동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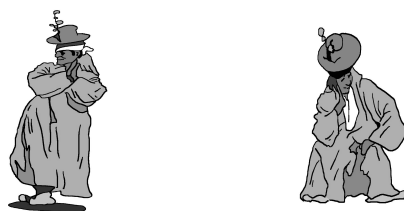
「생각하는 춤사위」는 새색시를 생각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장가를 가는 마음에 설레는 어린신랑의 모습을 보여준다.

최승희 초립동 춤은 도는 사위로 연결되며, 여유롭게 박자에 맞추어 손짓을 하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또 다른 동작으로는 마치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으로 한쪽 다리를 올리고 몸을 낮추어 고개를 좌우로 끄덕이는 동작이다. 이때, 검지를 볼에 대고 박자에 맞추어 고개를 움직인다.



〈그림 15〉 최승희의 초립동 - 생각하는 동작

조흥동 초립동 춤의 생각하는 춤사위는 두 손을 모아 걷는 동작과 새색시를 생각하는 동작이 있다. 두 손을 모아서 걷는 동작은 양 손을 왼 쪽 얼굴에 대고 천천히 걷는 동작이다. 시선은 한 곳을 응시하고, 발끝으로 천천히 걸어간다. 새색시를 생각하는 동작은 도는 사위와 연결되는 동작으로 돌고 난 후에 천천히 앉아서 검지를 볼에 대고 고개를 끄덕이는 동작이다.



〈그림 16〉 조흥동의 초립동 - 생각하는 동작

숨바꼭질을 하는 춤사위는 등장장면에서 나타나며, 어른흉내를 내며 걷는 춤사위 이전에 표현되어진다. 몸을 숨기고 있다가 반쯤 내밀어 쳐다본 후, 들킨 마음에 깜짝 놀라 다시 숨어버리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그림 17〉 조흥동의 초립동 - 숨바꼭질 하는 동작

양성옥 초립동 춤의 특징적인 해학적 춤사위는 「주먹을 쥐고 뛰는 춤사위」이다. 이 동작은 어른을 흉내 내는 동작으로 주먹을 쥐고 팔꿈치를 직각으로 들어 넓은 어깨를 해학적으로 표현하였고, 팔꿈치를 직각으로 들고 펼 때 팔을 위, 아래로 움직이며 남성을 과장되게 표현하였다.



〈그림 18〉 양성옥의 초립동 - 주먹을 쥐고 뛰는 동작

초립을 흔드는 춤사위는 조흥동 초립동 춤에서 가장 특징적인 춤사위라고 할 수 있다. 몸을 들쭉거리릴 때 초립이 회전하면서 움직이고, 흔들거리는 초립에 의해 어린 신랑의 천진난만한 모습을 극대화 시켰다.



〈그림 18〉 조흥동의 초립동 - 초립을 흔드는 동작

## IV. 결론

초립동 춤은 1937년 최승희에 의해 처음 추어졌다. 춤의 배경은 어린 나이에 장가를 가는 조선의 풍속을 해학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승희, 김백봉, 양성옥, 조흥동 초립동 춤의 해학적인 춤사위를 비교하여 초립동 춤의 해학적인 춤사위를 파악하고 그 특징을 알아보았다.

초립동 춤은 대체적으로 최승희의 초립동 춤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것이며 춤의 구성과 음악의 쓰임새에서 그 차이가 있다. 하지만, 초립동 춤이 갖고 있는 이야기와 동작에 내재되어 있는 해학성을 그대로 표현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무용수가 갖고 있는 춤사위와 시대가 변화됨에 따라 동작의 표현 및 소품의 구성 등에서 재구성되어지긴 하였으나 초립동 춤의 본질은 변화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각 초립동 춤에서 볼 수 있는 해학적인 공통된 춤사위로는 넘어지는 동작과 놀이를 하는 동작,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일어나지 못해 뿔뿔해있는 동작, 팔짱을 끼고 크게 걷는 사위와 뒤통치부터 힘 있게 걷는 사위, 팔꿈치를 90°로 올리고 주먹을 쥐고 뛰는 춤사위 등 어른을 흉내내는 동작이 있다. 또한 각 초립동 춤의 해학적 춤사위를 비교 해 본 결과 어른을 흉내 내며 걷는 춤사위와 도포를 사용한 춤사위는 공통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

초립동 춤은 어린신랑이 장가가는 모습을 해학적으로 표현하였는데, 실제로 성인 무용수가 아이를 표현한 것이 주목할 만하다. 또한 성인 무용수가 아이를 표현함으로써 해학적 춤사위가 더욱 과장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조흥동의 초립동을 제외한 최승희, 김백봉, 양성옥의 춤은 여성이 남자아이를 표현함에 따라 춤의 표현법이 더욱 과장되었으며, 춤이 갖고 있는 해학성이 더욱 강조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현재 초립동 춤은 빈번히 추어지고 있지는 않다. 70 ~ 80년대 아이들이 많이 추기 시작하면서 초립동 춤은 아이들이 추는 춤으로 인식되었으며, 전문적인 무용수의 춤 레퍼토리에서 제외되면서 해학적인 춤사위와 표현법이 점점 사라지게 되었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근대화 과정에서 소거된 춤의 서사가 가진 내재적 활력과 무용사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현재 사라져가는 근대 춤을 보존하고 재구성하기 위한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 ■ 참고문헌

- 민중서림(1988). 『옛센스 국어사전』. 서울: 민중서림.
- 이규태(1994). 『한국인의 정서구조 I』. 서울: 신원문화사.
- 한국콘텐츠진흥원(2005). 최승희 춤. 문화콘텐츠닷컴, 『문화원형백과』. 서울: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윤정(2008). 최승희의 예술세계 및 작품경향과 무용관.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고경희(2014). ‘초립동’ 춤에 대한 전승과 의미 탐색. 『한국무용연구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정승희(1995). 근대무용의 기점과 최승희의 작품세계. 『대한무용학회논문집』, 17: 77-115.
- 김호연(2015). 일제강점후기, 암흑시대 속 무용의 굴절양상. 『댄스포럼』, 17(7).
- 연합뉴스(1998, 6, 30). 최승희춤 선보인 북한국적 무용수 백향주. 『연합뉴스』.
- 황송문(1988). 한국인의 표정: 탈춤의 해학. 『북한』, 1월호: 140-143.
- 리철우, 김연갑(2011). 『전설의 무희 최승희의 예술세계』. 서울: 신나라 (DVD, 2 hours).

논문투고일 2016. 11. 15.  
심사일 2016. 11. 28.  
심사완료일 2016. 12. 7.

## Abstract

# An Analysis of Humorous Dance Movements of Choripdong Dance

Lee, seon-hwa\* · Lee, Ju-hee\*\*

Graduate student at Chung-Ang University\*, Professor, Chung-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characteristics of humorous dance movements in Choripdong Dance, and to reveal a hidden narrative of the dance and its significance in the history of dance. For the study, Choripdong Dance, which was based on Korean culture and developed into humorous dance movement by Seunghi Choi, is compared to traditional dance types and characteristics. This study aims to restore traditional dances that disappeared as a result of modernization and to reveal their significance in the historical context.

This study examines the background of Choripdong Dances developed by Seunghi Choi and other dancers and analyzes them based on the narrative and humor. It can help pass down and reinterpret traditional dances by understanding their power and historical context.

Keywords: Choripdong dance(초립동 춤), Humor(해학성), Seunghi Choi(최승희) Modern dance(근대춤), Humorous dance styles(해학적 춤사위)